

주요 뉴스: 美中, '관세 휴전 3개월 연장 여부 등을 논의 개별 협의 제외 국가'는 15~20% 관세

- ECB 주요 인사, 9월 금리인하 불필요. 역내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균형 유지
- 독일 총리, 對美 무역협의로 자국의 경제 피해 불가피. 일부는 불확실성 감소 평가
- 태국과 캄보디아, 휴전을 위한 회담 개최. 미국의 촉구 등이 효과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美中 관세 휴전 연장 가능성, 경기둔화 우려 완화 등이 영향

주가 강보합[+0.02%], 달러화 강세[+1.0%],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美中 관세 휴전 연장 기대,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으로 강보합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의 무역협약 관련 일부 부정 평가에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완화 예상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3%, 0.6%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7월 FOMC에서의 금리동결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EU와 미국의 무역협약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3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87.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9.8원, 0.56% 상승). 한국 CDS 하락

		7/28일	7/25일	전일대비			7/28일	7/2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389.8	6,388.6	+0.02%	국채 금리 10y	미국	4.41%	4.39%	+2bp
	유럽	548.76	549.95	-0.22%		독일	2.69%	2.72%	-3bp
	중국	3,597.9	3,593.7	+0.12%		영국	4.65%	4.64%	+1bp
	일본	40,998	41,456	-1.10%	CDS 5y	한국	22bp	23bp	-1bp
	한국	3,209.5	3,196.1	+0.42%		중국	40bp	41bp	-1bp
	달러지수	98.65	97.65	+1.03%	위험 지표	EMBI+	-	357	-
유로화	1.1589	1.1742	-1.30%	VIX		15.03	14.93	+0.67%	
환율	엔화	148.53	147.69	-0.57%		WTI유	66.71	65.16	+2.38%
	위안화	7.1788	7.1695	-0.13%	원자재	구리	559.5	576.4	-2.92%
	원화	1,382.0	1,377.9	-0.30%		금	3,314.6	3,337.3	-0.6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美中, '관세 휴전' 3개월 연장 여부 등을 논의. 개별 협의 제외 국가는 15~20% 관세
 - 미국과 중국의 대표단은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첫날 회담을 종료. 로이터 등에 따르면, 양국은 8/12일 끝나는 '관세 휴전'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국 측이 중국의 과잉생산에 우려를 표명하고 펜타닐 원료 통제를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
 -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의미 있는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합의보다는 기존 약속의 이행 점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 또한 중국이 협상에 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신호이며, 이번 협상의 결과에 과도한 기대를 갖기 보다는 실무적인 점검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
 - 영국 일간지 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진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술수출 제한 조치를 중단하도록 지시. 아울러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강경하다고 밝히고, 중국도 일본과 같이 시장개방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 피력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협의를 통한 관세합의를 맺지 않은, 주요 교역국을 제외한 200여개 국가에는 15~20%의 상호관세(이전 10%)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에 설정한 고강도 관세 제재의 '50일 시한'을 10~12일로 줄이겠다고 발언. 과거에도 만일 양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상품 구매자들에게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
 - 하지만,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는 이스라엘 혹은 이란이 아니며, 이러한 최후통첩은 전쟁을 향한 위협이라고 반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Morgan Stanley, S&P500지수 12개월 목표치 7,200. 기업이익 개선 등을 기대
 - 마이크 월슨 스트래티지스트는 S&P500지수의 12개월 목표치를 7,200으로 상향하고, 향후 달러화 약세 및 AI 활용의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이익 회복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설명. 기업들은 역사적인 이익 개선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부연

■ ECB 주요 인사, 9월 금리인하 불필요. 역내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균형 유지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인 카지미르 위원은 급격한 경기 악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9월 금리인하가 필요 없다는 의견 피력. 치폴로네 이사는 역내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독일 총리, 對美 무역합의로 자국의 경제 피해 불가피. 일부는 불확실성 감소 평가

- 메르츠 총리는 이번 합의로 자국 경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다만 궁극적으로 이익 보전은 가능하다고 부연. 프랑스의 무역담당 장관 역시 이번 합의는 균형이 맞지 않으며, 추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로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
- 한편 독일 정부는 향후 4년 동안의 방위비를 최대 1620억유로까지 늘려, 기존의 계획보다 2배 이상 확대할 방침. 이는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적대적 행위 증가에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 이에 국방비는 GDP의 3.5%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

■ Fitch, 핀란드 신용등급을 AA로 하향. 실업률 상승 및 공공부채 증가 등을 반영

- 핀란드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전망은 '긍정적' 유지. 당국의 경제성장 노력은 실업률 상승, 공공부채 증가 등의 역풍에 직면했다고 설명

■ 태국과 캄보디아, 휴전을 위한 회담 개최. 미국의 촉구 등이 효과

- 태국과 캄보디아 지도자들은 28일 말레이시아에서 국경 전투 종식을 위한 회담에 참석.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 등은 정전 회담을 지원할 계획. 이번 회담은 말레이시아 이브라힘 총리가 제안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하면서 성사

■ 캐나다 총리, 미국과의 무역협정은 긴박한 국면. 무관세 합의는 어려울 전망

-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만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언. 다만, 현재 협정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며, 관세를 완전히 피하는 형태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29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JOLTS 구인건수,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5월 FHFA 주택가격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관세 충격에도 AI와 감세 등으로 회복 탄력성 입증 - Financial Times

(What the world got wrong about tariffs)

-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이미 2.5%에서 15%로 상승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제한적. 관세 부담을 외국 수출업체와 미국 기업 및 소비자가 각각 20%, 80%로 분담하지만, 대규모 AI 투자와 정부의 감세정책이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
- 특히 AI 열풍은 금융여건을 완화적으로 유지시켜 성장을 뒷받침. 가전 등 일부 품목은 관세로 가격이 올랐지만, 임대료·중고차 등의 가격하락에 전체 물가는 안정적.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재는 경제를 부양하려는 힘이 더 크며, 복잡한 경제를 단일 정책 변수로 해석하려는 오류를 경계할 필요

■ 미국 금융시장 안정, 여러 충격에도 양호한 서비스업·소비기반 등이 뒷받침 - Financial Times

(The volatility paradox: why markets stay calm despite the noise)

- 미국 금융시장은 관세·지정학적 충격 등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옵션 계약 등에 내재된 변동성 기대는 2년 간 지속 하락.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 첫째, 미국 GDP의 81%, 소비지출의 69%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관세 등에 따른 경제 충격이 완화
- 둘째, 사상 최저 수준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주택 보유 증가·소득 중 10% 미만의 이자 비용 등 가계의 소비기반 강화. 셋째, 안정적인 부채 연장과 높은 수준의 이익률(13.8%)을 바탕으로 한 양호한 기업 재무현황. 넷째, 매력적인 채권 수익률. 다섯째, AI와 같은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기술 분야의 획기적 발전 등

■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안보·재정·국제규범 준수 감안 시 지속은 기대난 - 블룸버그

(Three Ways America's World Order Could Collapse)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억제·자유무역·민주주의 가치 수호·국제협력 등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여. 이러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그 동안 상당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다음의 이유로 점차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첫째, 중국·러시아·이란 등의 동시다발적 도전으로 미국 주도 국제안보질서 유지의 어려움 가중. 둘째, 재정부채 증가 등으로 군사력 및 국제영향력 확대에 필수적인 경제력 유지에 의구심 제기. 셋째, 인권보호 혹은 동맹국의 영토수호 등의 가치에 반한 시도(캐나다 합병, 그린란드 무력 점령 의도 등)

■ 미국의 관세합의, 시장은 안도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 - 블룸버그

(Trump's Tariffs Are Already Stunting World Growth While Markets Shrug)

- 미국 트럼프의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지만 일본, EU 등 일부 주요국과의 협상 타결로 금융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 하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적 피해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형국. 미국의 전체 관세율은 1930년 이후 최고치로 기업들은 자본 지출을 동결하고, 공급망 재편을 모색하며, 비용 충격 흡수를 위해 마진을 축소
- 아울러, 가계 소비지출도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과 고용 침체 우려로 정체(ING). 또한 G7 국가들의 내년 기업투자 전망은 연초와 비교하여 악화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높은 對美 관세율은 성장에 부정적 영향. 일부에서는 '27년 말까지 관련 여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Bloomberg)

■ 미국 신용카드 이용자, 금리인하 시 대출과 지출의 큰 폭 증가가 예상 - WSJ

(Credit-Card Users Are Cautious Now. Rate Cuts Could Open the Floodgates.)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도입, 신뢰성 위기 등 취약성을 고려할 필요 - WSJ

(Can Markets Trust Stablecoins?)

■ 미국-EU 관세 합의, 유로존 성장에 부정적이지만 ECB 금리인하 유도는 불충분 - WSJ

(Higher Tariffs Might Not Be High Enough to Spur ECB to Further Rate Cuts)

■ EU, 對美 관세율 낮췄지만 비대칭 타협으로 미국에 더 많은 혜택 제공 - 블룸버그

(Europeans, not Trump, ended up chickening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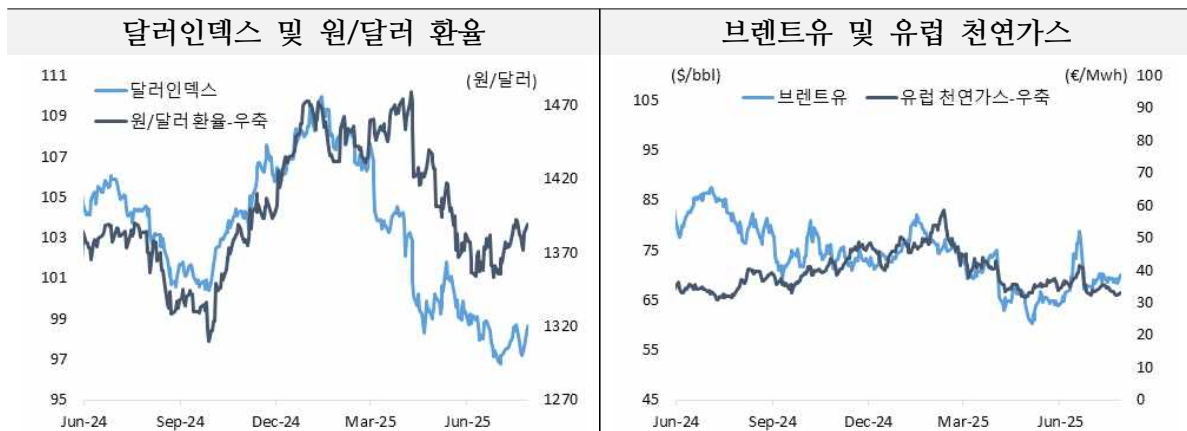
■ EU의 對美 무역합의, 지정학적 변동에 따른 역내 안보 리스크 해소 의도 반영 - NYT

(Europe Accepts a Trump Trade Deal With Other Worries in 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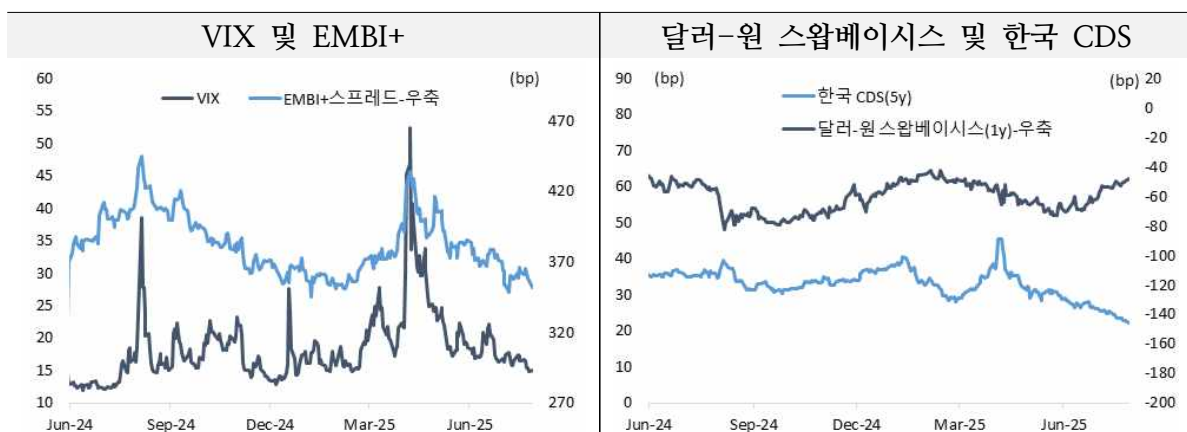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